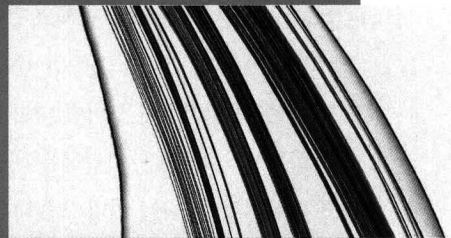


#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을 위해 만든 책을



## 문학이 지닌 소중한 가치 전수할 청소년 현대문학선.

오정화 | 문이당 청소년팀 대리



작품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국내 현대소설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문이당에서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을 출간한 것이다. 이번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은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국내 현대소설 가운데 문학성을 갖춘 작품을 선별한 뒤,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는 작품을 다시 가려 '청소년 현대문학'이란 이름의 의미를 살려냈다. 지난 2002년 김주영의 장편소설 《흥어》를 시작으로, 가족애가 진하게 느껴지는 소설 《아버지》와 《어머니》, 방랑 시인 김작스의 삶을 통해 인간의 고독을 짚어 보는 《시인》, 참다운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구도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 보석 같은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풍광과 사투리를 통해 정감 있게 그려 낸 《멀치》와 《물보라》, 최근 느낌표 도서로 선정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의 청소년 판 《거울속 여행》 등이 그것이다.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은 소설의 분량과 이야기 구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작가가 다시 꼼꼼히 손질했다. 그리고 국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삽화를 더하여 이미지에 익숙한 세대인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어려운 단어가 등장할 경우 각주를 달아 꼼꼼한 배려를 더했다. 이런 구체적인 개작은 청소년들이 한국 현대소설과 보다 친숙한 관계를 맺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함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경쟁주의적 가치관 가운데 폭넓은 인문정신을 함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가운데는 아동 출판물과 성인 출판물 사이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본격적인 독서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출판계의 잘못도 있었다.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은 청소년들에게, 문학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전수하고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함께 키워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상문화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기회와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은 미래의 독자층인 청소년들을 우리 문학의 세계로 끌어들이 한국문학의 생명력을 다지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을 읽고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가기 바란다. **추천**